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일부 대학생의 전공별
구강보건 관련 태도 및 행태에
관한 비교 분석

濟州大學校 保健福祉大學院

保健學科 口腔保健學 專攻

金 嘉 希

2019年 8月

제주지역 일부 대학생의 전공별 구강보건 관련 태도 및 행태에 관한 비교 분석

指導教授 박 형 근

金 嘉 希

이 論文을 保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6月

金嘉希의 保健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保健福祉大學院

2019年 6月

A Comparative Analysis of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d to Oral Health among Major
University Students in Jeju province

Ga-hee Kim
(Supervised by professor Hyeung-Keu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Health

2019.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Lim Gil Chai, Prof. of Public Health
.....

.....
(Name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 목적은 2018년 12월 제주도내 1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와 구강건강관리요인들이 구강보건태도, 실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65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요인에서 일일 칫솔질 횟수 3번 이상, 치실 사용, 구강보건 교육경험은 구강보건계열이 가장 높았다($p < 0.05$). 구강세정제 사용은 일반보건계열이 가장 높았다($p < 0.05$).
2.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요인에서 흡연과 음주, 칫솔질 2분미만, 4분이상 2학년이 가장 높았다($p < 0.05$). 일일 칫솔질 횟수 3번 이상, 칫솔질 2분미만 4분이상, 치실·혀클리너 사용, 구강보건교육은 3학년이 가장 높았다($p < 0.05$). 구강세정제 사용에서는 1학년이 가장 높았다($p < 0.05$).
3.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요인에서 흡연만 남학생이 높았고($p < 0.05$), 일일 칫솔질 횟수 3번 이상, 치실 사용, 구강보건교육, 아침식사 횟수는 여학생이 높았다($p < 0.05$).
4. 구강보건태도·실천의 평균 비교 시 구강보건계열은 구강보건태도의 5개 항목 모두 가장 높았다($p < 0.05$). 3학년은 4개 항목에서 가장 높았고, ‘저녁 식사 후와 자기 전 칫솔질을 할 의향이 있다.’ 항목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5$). 여학생이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보다 높았다($p < 0.01$).

구강보건실천의 8개 항목 중 구강보건계열은 ‘취침 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항목에서 가장 높았다. 3학년은 ‘취침 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칫솔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에서 가장 높았다($p < 0.05$). 여학생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구강검진 후 치과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있다.’,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취침 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칫솔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에서 남학생보다 높았다($p < 0.05$).

5. 구강보건태도 평균은 구강보건계열, 3학년, 여학생이 높았다. 구강보건계열의 학년별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3학년이 1학년보다 높았다($p < 0.05$).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구강보건계열, 3학년, 여학생이 높았다($p < 0.05$).

6. 구강보건태도와 실천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 = .433$, $p < 0.01$).

7. 구강보건태도는 계열과($p < 0.001$) 성별이($p < 0.001$), 구강보건실천은 성별이($p < 0.05$)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구강건강관리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비보건계열보다 구강보건계열($OR = 16.926$), 1학년보다 3학년이($OR = 4.676$) 높았다. 일일 칫솔질 횟수는 남학생이($OR = .271$) 낮았다. 치실 사용은 학년이(2학년 $OR = 2.076$, 3학년 $OR = 2.424$) 높을수록 높았고, 남학생이($OR = .600$) 낮았다. 치과 방문 여부는 남학생이($OR = .489$) 낮았고, 흡연은 2학년과($OR = 2.148$) 남학생일수록($OR = 4.431$) 흡연자가 많았다.

제주도내 1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한계가 있어 표본에 대한 편이가 있을 수 있으며,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없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추후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통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II. 연구 방법	6
1. 연구 설계	6
2. 연구 대상	6
3. 연구 도구	7
4. 연구 변수 정의	10
5.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13
6. 자료 분석 방법	14
7. 연구의 윤리적 고려	15
III. 연구 결과	16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
2. 대상자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요인	18
3. 대상자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요인	22
4. 대상자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요인	26
5. 구강보건태도·실천	30
6. 구강보건태도·실천 간의 상관관계	40
7. 구강건강관리요인이 구강보건태도·실천에 미치는 영향	41
8. 구강건강관리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44

IV. 논의	48
V. 결론	52
감사의 글	5 4
참고문헌	5 5
ABSTRACT	5 9
부록(설문지)	6 1

표 목 차

Table 1. Components of the Questionnaire	7
Table 2. Oral Health Care Factors	8
Table 3.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Oral Health of Subjects	9
Table 4.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17
Table 5. Oral Health Care Factors According to Major	21
Table 6. Oral Health Care Factors According to Grade	25
Table 7. Oral Health Management Factors According to Sex	28
Table 8. Comparison of Oral Health Attitude According to Major	30
Table 9. Comparison of Oral Health Practice According to Major	31
Table 10. Comparison of Oral Health Attitudes by Grade	32
Table 11. Comparison of Oral Health Practices by Grade	33
Table 12. Comparison of Oral Health Attitudes According to Sex	34
Table 13. Comparison of Oral Health According to Sex	35
Table 14. Comparison of Oral Health Attitude and Practice Average by Major	36
Table 15. Oral Health Attitude and Practice by Grade	37
Table 16. Oral Health Attitude and Average of Oral Health by Grade	37
Table 17. Comparison of Oral Health Attitude and Practice Average by Sex	38
Table 18.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Attitude and Practice	39
Table 1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al Health Attitude	41
Table 2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al Health Practice	42
Table 21.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43
Table 2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eeth Daily Brushing Frequency	44

Table 2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Dental Floss Use	45
Table 2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Dental Visits	46
Table 2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moking Status	4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정서적, 인지적 기능 수행), 사회적 안녕 상태이며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개념을 생활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 31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국민의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35조 제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민의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행복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건강을 필수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구강건강의 경우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오늘날 건강의 개념이 총체적인 생활개념으로 파악되고 있고 건강의 필수적 요소가 구강건강이라고 보게 되었으며 구강건강은 건강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고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1].

우리나라의 학교 구강보건은 학령기 인구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려는 체계적 교육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구강보건사업의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에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생은 성인으로 분류하여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1].

성인은 영·유아인구, 학생인구, 노인인구를 제외한 연령층인 18~65세 미만의 인구층으로 볼 수 있으며 성인인구는 18~39세까지의 인구를 청년인구, 40~64세까지의 인구를 장년인구로 구분하는데, 대학생은 이 중 청년인구로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1].

최근 몇 년간 대학 진학률을 보면 2017년 76.9%, 2018년 77.2%, 2019년 76.5%로 확인되었다^[2]. 대학 진학률이 높은 만큼 대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집단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의 건강생활 실천이 성인기의 의료비 절감효과 및 건강 투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생들은 주요 건강문제, 건강수준, 건강행동 및 관련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 캠퍼스 내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교에서 학생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학생 건강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3].

외국의 연구로는 쿠웨이트의 assem Al-Ansari와 2인의 연구에서 구강보건지식이 낮은 학생들의 구강보건관련 행위에 대한 실천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4]. 또한 Halboub E의 연구에서는 예멘 사나에 소재한 두 대학의 치과 및 의과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태도 및 행동이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고 보고하였으며^[5], 구강건강 행동의 이문화 간 차이점 비교를 위해 일본과 호주의 치과 대학 학생의 치아건강태도와 행동을 비교한 M.카와무라 외 2인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지식이 높았던 호주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보다 치석제거율 등 구강건강행위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아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 또한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6].

가장 효율적인 구강 내 치면세균막 제거 방법은 올바른 칫솔질이지만 칫솔질만으로 치간부위의 치면세균막을 완벽히 제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개인의 구강환경 특성에 적합한 구강보조 위생용품을 사용하여 구강질환의 발생원인인 치면세균막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7].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결과를 보면 2015년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64.1%였고, 2016년은 64.4%였으나 2017년에는 59.4%로 감소하였다^[8].

2012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8세에서 30.4%, 12세에서 57.3%, 15세에서는 71.1% 였다. 영구치우식유병자율의 경우 8세에서 3.4%, 12세에서 12.2%, 15세에서 19.2%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이다. 구강건강보조용품인 치실 사용률은 11.1%, 치간칫솔 사용률은 14.1%로 조사되었고 구강세정액 사용률이 17.3%로 확인되었다

[9]. 또한,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구치우식 유병률(만 19세 이상, 표준화)에서 2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유병률을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19-29세 영구치 치아우식증 유병률은 34.6%로 나타났다. 치주질환 유병률(19세 이상, 표준화)의 경우 26.4%로 나타났으며 19-29세에서는 5.1%의 유병률을 보였다. 이 수치는 14년도에 조사된 4.3%에서 증가된 수치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유병률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구강기능제한율과 저작불편호소율을 살펴보면 먼저 구강기능제한율에서 전체 19세 이상(표준화)에서 21.8%, 19-29세에서 9.7%로 15년도 6.6%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불편호소율의 경우 19세 이상(표준화)에서 17.8%, 19-29세에서 7.7%로 15년도의 6.4%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청년기의 성인들에게서 구강질환 이환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강건강 실천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관리의 일부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능력 배양 관점에서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강건강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규정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동적 과정이며, 구강건강행태는 생물학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차적인 문화적, 사회적, 심리학적 특성을 지님을 이해하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계획적인 교육으로 동기유발을 일으켜 행동변화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0].

대학생은 미래를 짊어지고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이 시기는 미래의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 때 형성된 성격, 인생관 및 가치관은 장년기 이후 활동의 기반이 되며, 가정을 이룰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과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은 본인은 물론 주변인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대학생 시기의 건강관리 습관은 장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구강 질병 예측인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구강건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습득과 실천은 건강한 노후생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대부분 학령기에 발생한 치아우식병과 치주병이 축적 되어 있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치아우식병과 치주병이 계속 발생되고 진행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대학생들은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구강진료를 비교적 받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 구강검진을 19세 이상에서 35.4%였으며, 대학생 연령을 포함한 19-29세 사이에서는 31.5%였다^[8]. 구강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되고, 수업에 결석을 하게 된다는 것은 대학생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3].

대학에서 전공은 특정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각 전공계열별 교육과정이나 주변 대학환경,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공계열별 구강건강관련 요인들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에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기존 부산^[11], 경남^[12], 전라북도 전주시^[13] 지역의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로만 구분하여 구강보건계열과 일반보건계열에 구분을 두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혹은 구강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로 구분하여 일반보건계열은 제외하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구강보건계열과 일반보건계열의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 시기에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 실천을 점검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이러한 태도,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 시기에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3].

일부 학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음주나 흡연을 쉽게 접하는 시기이므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행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회적·정신적·신체적으로 완숙된 시기인 성인 초기에 있는 대학생 시절에 정착된 건강습관은 성인기 건강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반해, 스스로의 건강을 자신하여 무관심과 부주의한 태도를 갖기 쉬워 성인 중기나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의 수정 필요성이 큰 시기이다^[10].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는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제주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미희 ‘제주지역 성인들의 구강건강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나^[14] 김연화 ‘북제주군 초등학교 학동들의 구강보건교육에 관련된 인식도 및 제1대구치 건강증진도 평가’^[15], 김진아 ‘제주도 고등학생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와^[16] 같이 성인이나 아동,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있었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계열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계열별, 학년별, 성별로 구강건강관리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며, 구강건강관리요인 중 구강보건 태도, 실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제주도내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계열(치기공과/치위생과), 구강보건계열을 제외한 일반보건계열(간호학과/안경광학과), 비보건계열(관광경영과/호텔경영과/메카트로닉스과/호텔조리과), 학년별,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요인에 대한 인식도 및 인식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해당 구강건강관리요인들이 구강보건태도, 실천 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연령·학과·학년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구강관리용품, 구강건강상태, 구강보건교육경험 및 구강보건태도·실천도를 분석하기 위한 단면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제주지역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학과계열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계열(치기공과/치위생과), 일반보건계열(간호학과/안경광학과), 비보건계열(관광경영과/호텔경영과/메카트로닉스과/호텔조리과)의 학과 학생을 임의로 380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370명이 응답하여 97.36%의 응답률을 보였고, 불완전한 응답 5명을 제외한 365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1)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구강관리보조용품에 대한 인식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전공분야별 구강보건전공, 일반보건전공, 비보건전공 학생들을 비교하기 위해 이수빈의 선행연구^[2]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Table 1. Components of the Questionnaire>

항목	문항수
General characteristics	4
Oral Health Care	18
Oral Care Supplies	3
Oral health status	7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2
Oral health knowledge	5
Oral health attitude	5
Oral health practice	8

설문문항은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구강건강관련요인

구강건강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을 구강건강관리, 구강관리용품, 구강건강상태, 구강보건교육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항목의 세부항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Oral Health Care Factors>

항목	
Oral Health Care	Bad breath, smoking, Drinking, Number and type of snack intake, Number of breakfasts, teeth daily brushing frequency, Brushing time, Brushing formula, How to brush, Tongue brushing, Toothbrush replacement porridge, Bleeding gums when brushing, Subjective oral health care concerns
Oral Care Supplies	Currently used oral care product species, Use instrument, Reason not to use
Oral health status	Visits Dental Clinic, purpose of visit, Scaling experience, Whether dental treatment is necessary, Mastering the untreated dental treatment, Subjective oral care is important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Source of oral health information

3) 구강보건지식·태도·실천

구강보건지식의 경우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표기하였으며, 태도·실천의 경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강보건지식·태도·실천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 알파계수를 이용하였다.

<Table 3.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Oral Health of Subjects>

영역	세부내용	Cronbach's α
Oral health knowledge	Gum bottles and scaling(1)	0.530
	Brushing behavior(3)	
	Oral Care Supplies(1)	
Oral health attitude	Gum bottles and scaling(1)	0.843
	Brushing behavior(3)	
	Oral Care Supplies(1)	
Oral health practice	Prevention of Oral Diseases(2)	0.822
	Eating habit(1)	
	Brushing behavior(5)	

4. 연구 변수 정의

1) 일반적 특성

- ① 연령 : 조사시점의 연령을 조사
- ② 가족의 월 소득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으로 구분
- ③ 아르바이트 여부 : 예, 아니오로 구분

2) 구강건강관리

- ① 구취(본인) : 안난다, 가끔 난다, 심하다 중 선택
- ② 구취(타인) : 예, 아니오 중 선택
- ③ 흡연 : 예, 아니오 중 선택
- ④ 일일 흡연량 : 일일 흡연 개피를 직접 기입
- ⑤ 음주 : 예, 아니오 중 선택
- ⑥ 주간 음주 횟수 : 주간 음주 횟수를 직접 기입
- ⑦ 1회 음주량 : 소주반병, 소주 1~2병 미만, 소주 2병 이상, 맥주 반병, 맥주 1~2병 미만, 맥주 2병 이상 중 선택
- ⑧ 일일 간식 횟수 : 하루 3회 이상, 하루 2회, 하루 1회, 안먹는다 중 선택
- ⑨ 간식 종류 : 빵류, 과자류, 우유·유제품, 라면·튀김류, 과일·과일주스, 떡류 중 선택
- ⑩ 주간 아침식사 횟수 : 일주일간 아침식사 횟수 직접 기입하게 한 후 주 0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주 7회로 구분
- ⑪ 일일 칫솔질 횟수 : 하루 0번, 하루 1번, 하루 2번, 하루 3번 이상 중 선택하게 하여, 하루 2번 이하, 하루 3번 이상으로 구분
- ⑫ 칫솔질 시기 : 아침 식사 전,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전, 저녁 식사 후, 간식 섭취 전, 간식 섭취 후, 흡연 전, 흡연 후로 구분하여 해당사항 모두 선택

⑬ 칫솔질 시간 : 1분 미만, 1~2분 미만, 2~3분 미만, 3~4분 미만, 4분 이상 중 선택하게 하여, 2분 미만, 2분 이상 4분 미만, 4분 이상으로 구분

⑭ 칫솔질 할 때의 방법 : 옆으로 치아만 닦는다(횡마법). 위아래로 치아만 닦는다(종마법). 옆으로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치은 마사지를 포함한 횡마법). 위아래로 돌려가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묘원법).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칫솔을 회전하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회전법). 중 선택

⑮ 혀솔질 유무 : 예, 아니오 중 선택

⑯ 칫솔 교체 주기 :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중 선택

⑰ 칫솔질 시 잇몸 출혈 여부 : 매번 난다, 가끔 난다, 안난다 중 선택

⑱ 주관적 구강건강관리 관심도 : 매우낮다, 낮다, 보통이다 중 선택

3) 구강관리용품

① 현재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 : 치실, 혀클리너, 치간칫솔, 구강세정제, 전동칫솔, 워터픽, 치실고리, 없다 중 해당되는 사항 모두 선택

② 사용 계기 :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 강의(프로그램)를 통해 지식 습득 후 사용, 치과·보건소에서의 구강보건교육 이후 지식 습득 후 사용, 가족·친구·지인의 추천으로 사용, TV방송(구강보건관련 프로그램, TV광고)을 통해 지식 습득 후 사용, 인터넷을 통해 지식 습득 후 사용 중 선택

③ 구강관리용품 미사용 이유 : 구강관리용품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사용하기 귀찮아서, 구강관리용품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칫솔질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서,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모자라서 중 선택

4) 구강건강상태

① 치과 방문 여부 : 1년 내 치과 방문 여부를 예, 아니오 중 선택

② 치과 방문 목적 : 1년 내 치과 방문 목적을 정기구강검진, 충치치료(신경치료

포함), 잇몸병치료, 이를 빼거나 구강 내 수술(농양수술, 다치거나 썩어서 빠지거나 부러진 치아 치료 및 보철(임플란트 포함), 교정치료, 기타(직접 기입) 중 선택

③ 스케일링 경험 : 1년 내 스케일링 경험을 예, 아니오 중 선택

④ 치과치료 필요성 : 1년 동안 치과치료 필요성 자각 여부를 예, 아니오 중 선택

⑤ 치료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 : 경제적인 이유, 치과 병·의원 등이 너무 멀어서, 학교에 결석할 수가 없어서, 치과진료를 받기가 무서워서,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 중 선택

⑥ 현재 충치 여부 : 예, 아니오 중 선택

⑦ 구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인 : 선천적인 면, 칫솔질, 음식, 정기적인 구강검진 중 선택

5) 구강보건교육 경험

①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 : 구강위생관리방법, 칫솔질 방법, 스케일링 필요성, 금연 등의 교육 경험 여부를 예, 아니오 중 선택

② 구강건강 정보 출처 : 학교 수업을 통하여, TV나 라디오 대중매체를 통하여, 의료기관(치과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신문·잡지 등의 인쇄매체를 통하여, 가족 또는 주위사람들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중 선택

5.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 도구로 설문지를 작성 후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해 제주지역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의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지를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2)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제주도내에 소재한 일개대학교의 협조를 구해 재학생 명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 관계자의 협조를 구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 2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측정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의 신뢰성 계수를 이용한 Cronbach 알파값은 구강보건지식 0.530, 구강보건태도 0.843, 구강보건실천 0.822이 나왔으며 Cronbach 알파계수 0.6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구강보건지식 항목은 제외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과 빈도,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계열, 학년,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관리요인, 구강보건태도·실천은 One-way Anova,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4) 구강건강관리요인이 구강보건태도·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계열, 학년, 성별,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② 일일 칫솔질 횟수 : 하루 0번 1, 하루 1번 2, 하루 2번 3, 하루 3번 이상으로 하였다.

5) 구강건강관리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계열 : 구강보건계열 1, 일반보건계열 2, 비보건계열 3으로 하였으며, 비보건계열을 기준으로 구강보건계열, 일반보건계열을 비교하였다.

② 학년 : 1학년 1, 2학년 2, 3학년 3으로 하였으며, 1학년을 기준으로 2학년, 3

학년을 비교하였다.

③ 성별 : 남학생 1, 여학생 2로 하였으며, 여학생을 기준으로 남학생을 비교하였다.

④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 : 예 1, 아니오 2로 하였다.

⑤ 일일칫솔질 횟수 : 하루 2번 이하 1, 하루 3번 이상 2로 하였다.

⑥ 치실 사용 : 예 1, 아니오 2로 하였다.

⑦ 치과방문 여부 : 예 1, 아니오 2로 하였다.

⑧ 흡연 : 예 1, 아니오 2로 하였다.

7.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8년 11월 28일에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 JJNU-IRB-2018-052-001).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 작성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 연구 진행과 관련된 설명을 제공하였고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지 할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문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는 <Table 4>와 같다.

학과는 각각 구강보건계열, 일반보건계열, 비보건계열로 나누어 구강보건계열 128명(치기공과 54명 14.8%, 치위생과 74명 20.8%), 일반보건계열 110명(간호학과 60명 16.4%, 안경광학과 50명 13.7%), 비보건계열 127명(관광경영과 18명 4.9%, 호텔경영과 30명 8.2%, 호텔조리과 49명 13.4%, 메카트로닉스과 30명 8.2%)이었다. 학년별로 1학년 179명(49.0%), 2학년 88명(24.1%), 3학년 98명(26.8%)으로 나타났고,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171명(46.8%), 여학생이 194명(53.2%)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만 19세 이하 116명(31.8%), 만 20~29세 234명(64.1%), 만 30세 이상은 15명(4.1%)으로 나타났다.

흡연여부는 흡연자가 83명(22.7%), 비흡연자가 282명(77.3%), 음주여부의 음주자가 257명(70.4%), 비음주자가 108명(29.6%)이었다.

<Table 4.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Frequency (n=365)	Percentage		
Major category	Department of Health	Oral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54	14.8	
		Health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74	20.3	
		General health	Department of Nursing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60	16.4	
	Non-health department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18	4.9	
			Department of Hotel Management	30	8.2	
			Department of Hotel Culinary Arts	49	13.4	
			Department of Mechatronics	30	8.2	
			Grade	1	179	49.0
				2	88	24.1
	Sex		3	98	26.8	
			Male	171	46.8	
	Age		Female	194	53.2	
Under 19			116	31.8		
20 ~ 29 years			234	64.1		
Smoking		30 years or older	15	4.1		
		Yes	83	22.7		
Drinking		No	282	77.3		
		Yes	257	70.4		
		No	108	29.6		

2. 대상자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요인

연구 대상자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요인에 대한 차이는 <Table 5>와 같다.

1) 흡연

구강보건계열에서 흡연자는 26명(20.3%)이고, 비흡연자는 102명(79.7%)이었다. 일반보건계열에서 흡연자는 23명(20.9%), 비흡연자는 87명(70.1%)이었고, 비보건계열에서는 흡연자는 34명(26.8%), 비흡연자는 93명(73.2%)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2) 음주

구강보건계열에서 음주자는 83명(64.8%)이었고, 비음주자는 45명(35.1%)이었으며, 일반보건계열에서는 음주자는 85명(77.3%), 비음주자는 25명(22.7%)이었다. 비보건계열에서는 음주자는 89명(70.1%)이었고, 비음주자는 38명(29.9%)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3) 일일 칫솔질 횟수

구강보건계열에서 하루 2번 이하 칫솔질 한다는 경우가 3명(2.3%), 하루 3번 이상이 125명(97.7%)이고, 일반보건계열에서는 하루 2번 이하가 9명(8.2%), 하루 3번 이상이 101(91.8%)명이었으며, 비보건계열에서 하루 2번 이하가 17명(13.4%), 하루 3번 이상이 110명(86.6%)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4) 평균 칫솔질 시간

구강보건계열에서 2분 미만이 28명(21.9%), 2분이상 4분 미만이 69명(53.9%), 4분 이상이 31명(24.2%)으로 나타났고, 일반보건계열에서 2분 미만이 31명(28.2%), 2분이상 4분 미만이 43명(39.1%), 4분 이상이 36명(32.7%)으로 나타났다. 비보건계열에서 2분 미만 36명(28.3%), 2분 이상 4분 미만이 65명(51.2%), 4분 이상이 26명(20.5%)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5) 찻솔질 방법

구강보건계열에서 무응답은 0명(0%), 횡마법 3명(2.3%), 종마법 3명(2.3%), 치은마사지를 포함한 횡마법 4명(3.2%), 묘원법 40명(31.3%), 회전법 78명(10.9%)이었으며, 일반보건계열에서 무응답이 3명(2.7%), 횡마법 4명(3.6%), 종마법 6명(5.5%), 치은마사지를 포함한 횡마법 6명(5.5%), 묘원법 39명(35.4%), 회전법 52명(47.3%)이었다. 비보건계열에서 무응답은 0명(0%), 횡마법 6명(4.7%), 종마법 7명(5.5%), 치은마사지를 포함한 횡마법 9명(7.1%), 묘원법 34명(26.8%), 회전법 71명(55.9%)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6) 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

① 치실

구강보건계열에서 치실을 사용한다가 50명(39.1%), 사용하지 않는다가 78명(60.9%)이었으며, 일반보건계열에서 사용한다가 30명(27.3%), 사용하지 않는다가 80명(72.7%)이었다. 비보건계열에서 사용한다가 24명(18.9%), 사용하지 않는다가 103명(81.1%)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② 혀클리너

구강보건계열에서 혀클리너를 사용한다가 28명(21.9%), 사용하지 않는다가 100명(78.1%)이었으며, 일반보건계열에서 사용한다가 13명(11.8%), 사용하지 않는다가 97명(88.2%)이었으며, 비보건계열에서 사용한다가 21명(16.5%), 사용하지 않는다가 106명(83.5%)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③ 치간칫솔

구강보건계열에서 사용한다가 8명(6.2%), 사용하지 않는다가 120명(93.8%)이었고, 일반보건계열에서 사용한다가 15명(13.6%), 사용하지 않는다가 95명(86.4%), 비보건계열에서 사용한다가 13명(10.2%), 사용하지 않는다가 114명(89.8%)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④ 구강세정제

구강보건계열에서 사용한다가 13명(10.2%), 사용하지 않는다가 115명(89.8%)이었고, 일반보건계열에서 사용한다가 26명(23.6%), 사용하지 않는다가 84명(79.4%)이었으며, 비보건계열에서 사용한다가 20명(15.7%), 사용하지 않는다가 107명(84.3%)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7) 구강보건교육경험

구강보건계열에서 경험한 경우가 114명(89.1%), 미경험의 경우가 14명(10.9%)으로 나타났다. 일반보건계열에서 경험한 경우 12명(10.9%), 미경험의 경우가 98명(89.1%)이었고, 비보건계열에서 경험한 경우가 22명(17.3%), 미경험한 경우가 105명(82.7%)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8) 아침식사횟수

구강보건 계열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41명(32.0%), 주 1~2회 식사를 하는 경우가 43명(33.6%), 주 3~4회가 22명(17.2%), 주 5~6회가 9명(7.0%), 주 7회가 13명(10.2%)으로 나타났다. 일반보건계열에서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37명(33.6%), 주 1~2회가 31명(28.2%), 주 3~4회가 18명(16.4%), 주 5~6회가 11명(10.0%), 주 7회가 13명(11.8%)으로 나타났고, 비보건계열에서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경우가 65명(51.2%), 주 1~2회가 28명(22.0%), 주 3~4회가 16명(12.6%), 주 5~6회가 10명(7.9%), 주 7회가 8명(6.3%)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Table 5. Oral Health Care Factors According to Major>

category	Division	Major category			x^2	p
		Oral Health	General health	Non-health department		
smoking	Yes	26 (20.3%)	23 (20.9%)	34 (26.8%)	1.814	0.404
	No	102 (79.7%)	87 (70.1%)	93 (73.2%)		
Drinking	Yes	83 (64.8%)	85 (77.3%)	89 (70.1%)	4.397	0.111
	No	45 (35.1%)	25 (22.7%)	38 (29.9%)		
Number of Brushing	Less than 2 times a day	3 (2.3%)	9 (8.2%)	17 (13.4%)	10.639	0.005*
Brushing	More than 3 times a day	125 (97.7%)	101 (91.2%)	110 (86.6%)		
Brushing Time	Less than 2 minutes	28 (21.9%)	31 (28.2%)	36 (28.3%)	7.872	0.096
	Less than 2 minutes and less than 4	69 (53.9%)	43 (39.1%)	65 (51.2%)		
How to Brush	More than 4 minutes	31 (24.2%)	36 (32.7%)	26 (20.5%)	15.255	0.123
	No answer	0 (0%)	3 (2.7%)	0 (0%)		
Oral Care Supplies	Scrub method	3 (2.3%)	4 (3.6%)	6 (4.7%)	12.838	0.002*
	Vertical method	3 (2.3%)	6 (5.5%)	7 (5.5%)		
	Scrub method including gingival massage	4 (3.2%)	6 (5.5%)	9 (7.1%)		
	Circular method	40 (31.3%)	39 (35.4%)	34 (26.8%)		
Dental floss	Rolling method	78 (60.9%)	52 (47.3%)	71 (55.9%)	4.271	0.118
	Dental Use	50 (39.1%)	30 (27.3%)	24 (16.5%)		
Oral Care Supplies	floss Unused	78 (78.1%)	80 (72.7%)	103 (81.1%)	3.661	0.160
	Tongue Use	28 (21.9%)	13 (11.8%)	21 (16.5%)		
Oral health Education	Cleaner Unused	100 (93.8%)	97 (88.2%)	106 (83.5%)	7.958	0.019*
	Interdental toothbrush Use	8 (6.2%)	15 (13.6%)	13 (10.2%)		
Experience	toothbrush Unused	120 (93.8%)	95 (86.4%)	114 (89.8%)	193.476	0.000***
	Oral cleanser Use	13 (10.2%)	26 (23.6%)	20 (15.7%)		
Breakfasts	Oral cleanser Unused	115 (89.8%)	84 (79.4%)	107 (84.3%)	13.968	0.083
	Oral health Education Yes	114 (89.1%)	12 (10.9%)	22 (17.3%)		
Breakfasts	Experience No	14 (10.9%)	98 (89.1%)	105 (82.7%)	13.968	0.083
	0 times a week	41 (32.0%)	37 (33.6%)	65 (51.2%)		
	1 to 2 times a week	43 (33.6%)	31 (28.2%)	28 (22.00%)		
	3 to 4 times a week	22 (17.2%)	18 (16.4%)	16 (12.6%)		
	5 to 6 times a week	9 (7.0%)	11 (10.0%)	10 (7.9%)		
	7 times a week	13 (10.2%)	13 (11.8%)	8 (6.3%)		

* $p < .05$ *** $p < .001$

3. 대상자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요인

연구 대상자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요인에 대한 차이는 <Table 6>과 같다.

1) 흡연

1학년 중 흡연자는 40명(22.3%), 비흡연자는 139명(77.7%)이었다. 2학년에서 흡연자는 31명(35.2%), 비흡연자는 57명(64.8%)이었으며 3학년에서 흡연자는 12명(12.2%), 비흡연자는 86명(87.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2) 음주

1학년 중 음주자는 128명(71.5%), 비음주자는 51명(28.5%)이었고 2학년에서 음주자는 70명(79.5%), 비음주자는 18명(20.5%)이었다. 3학년에서 음주자는 59명(60.2%), 비음주의자는 39명(39.8%)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3) 일일 칫솔질 횟수

1학년에서 하루 2번 이하의 경우는 21명(11.7%) 하루 3번 이상은 158명(88.3%)으로 나타났다. 2학년에서 하루 2번 이하의 경우는 6명(6.8%)이었고 하루 3번 이상은 82명(93.2%)이었다. 3학년에서 하루 2번 이하는 2명(2.0%), 하루 3번 이상은 96명(98.0%)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4) 평균 칫솔질 시간

1학년 중에 2분 미만의 경우는 47명(26.3%), 2분 이상 4분 미만이 84명(46.9%)이었으며 4분 이상은 48명(26.8%)으로 나타났다. 2학년에서 2분 미만은 31명(35.2%), 2분 이상 4분 미만이 33명(37.5%), 4분 이상은 24명(27.3%)으로 나타났다. 3학년에서 2분 미만은 17명(17.3%), 2분 이상 4분 미만이 60명(61.2%), 4분 이상은 21명(21.4%)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5) 칫솔질 방법

1학년에서 무응답은 2명(1.1%), 횡마법은 8명(4.5%), 종마법은 8명(4.5%), 치은마사지를 포함한 횡마법은 11명(6.1%), 묘원법은 46명(25.7%), 회전법은 104명(58.1%)으로 나타났다. 2학년에서 무응답은 1명(1.1%), 횡마법은 3명(3.4%), 종마법은 4명(4.6%), 치은마사지를 포함한 횡마법은 5명(5.7%), 묘원법은 33명(37.5%), 회전법은 42명(47.7%)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에서 무응답은 0명(0%), 횡마법은 2명(2.0%), 종마법은 4명(4.1%), 치은마사지를 포함한 횡마법은 3명(3.1%), 묘원법은 34명(34.7%), 회전법은 55명(56.1%)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6) 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

① 치실

1학년에서 치실을 사용한다는 33명(18.4%), 사용하지 않는다는 146명(81.6%)이었고 2학년에서 치실을 사용한다는 28명(31.8%), 사용하지 않는다는 60명(68.2%)이었다. 3학년에서 치실을 사용한다는 43명(43.9%), 사용하지 않는다는 55명(56.1%)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② 혀클리너

1학년에서 혀클리너를 사용한다는 22명(12.3%), 사용하지 않는다는 157명(87.7%), 2학년에서 혀클리너를 사용한다는 16명(18.2%), 사용하지 않는다는 72명(81.8%)이었으며 3학년에서 혀클리너를 사용한다는 24명(24.5%), 사용하지 않는다는 74명(75.5%)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③ 치간칫솔

1학년에서 치간칫솔을 사용한다는 19명(10.6%), 사용하지 않는다는 160명(89.4%)이었다. 2학년에서 치간칫솔을 사용한다는 8명(9.1%), 사용하지 않는다는 80명(90.9%)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에서 치간칫솔을 사용한다가 9명(9.2%), 사용하지 않는다가 89명(90.8%)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

었다.

④ 구강세정제

1학년에서 구강세정제를 사용한다가 27명(15.1%), 사용하지 않는다가 152명(84.9%)이었으며, 2학년에서 구강세정제를 사용한다가 25명(28.4%), 사용하지 않는다가 63명(71.6%)으로 나타났다. 3학년에서 구강세정제를 사용한다가 7명(7.1%), 사용하지 않는다가 91명(92.9%)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7) 구강보건교육경험

1학년에서 경험한 경우가 35명(19.6%), 미경험의 경우가 144명(80.4%)이었으며, 2학년에서 경험한 경우가 26명(29.5%), 미경험의 경우가 62명(70.5%)이었다. 3학년에서 경험한 경우가 87명(88.8%), 미경험의 경우가 11명(11.2%)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8) 아침식사횟수

1학년 중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74명(41.3%), 주 1~2회는 51명(28.5%), 주 3~4회는 26명(14.5%), 주 5~6회는 10명(5.6%), 주 7회는 18명(10.1%)으로 나타났다. 2학년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32명(36.3%), 주 1~2회는 19명(21.6%), 주 3~4회는 16명(18.2%), 주 5~6회는 11명(12.5%), 주 7회는 10명(11.4%)으로 나타났다. 3학년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37명(37.8%), 주 1~2회는 32명(32.7%), 주 3~4회는 14명(14.3%), 주 5~6회는 9명(9.1%), 주 7회는 6명(6.1%)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Table 6. Oral Health Care Factors According to Grade>

Category	Division	Grade			x^2	p
		1	2	3		
smoking	Yes	40 (22.3%)	31 (35.2%)	12 (12.2%)	13.970	0.001*
	No	139 (77.7%)	57 (64.8%)	86 (87.8%)		
Drinking	Yes	128 (71.5%)	70 (79.5%)	59 (60.2%)	8.528	0.014*
	No	51 (28.5%)	18 (20.5%)	39 (39.8%)		
Number of Brushing	Less than 2 times a day	21 (11.7%)	6 (6.8%)	2 (2.0%)	8.333	0.016*
	More than 3 times a day	158 (88.3%)	82 (93.2%)	96 (98.0%)		
Brushing Time	Less than 2 minutes	47 (26.3%)	31 (35.2%)	17 (17.3%)	12.129	0.016*
	Less than 2 minutes and less than 4 minutes	84 (46.9%)	33 (37.5%)	60 (61.2%)		
How to Brush	More than 4 minutes	48 (26.8%)	24 (27.3%)	21 (21.4%)	7.832	0.645
	No answer	2 (1.1%)	1 (1.1%)	0 (0%)		
Brush	Scrub method	8 (4.5%)	3 (3.4%)	2 (2.0%)	7.832	0.645
	Vertical method	8 (4.5%)	4 (4.6%)	4 (4.1%)		
Oral Care Supplies	Scrub method including gingival massage	11 (6.1%)	5 (5.7%)	3 (3.1%)	20.748	0.000*
	Circular method	46 (25.7%)	33 (37.5%)	34 (34.7%)		
Oral Care Supplies	Rolling method	104 (58.1%)	42 (47.7%)	55 (56.1%)	6.801	0.033*
	Dental floss	33 (18.4%)	28 (31.8%)	43 (43.9%)		
Oral Care Supplies	Tongue Cleaner	22 (12.3%)	16 (18.2%)	24 (24.5%)	.224	0.894
	Unused	146 (81.6%)	60 (68.2%)	55 (56.1%)		
Oral Care Supplies	Interdental toothbrush	157 (87.7%)	72 (81.8%)	74 (75.5%)	15.776	0.000*
	Use	19 (10.6%)	8 (9.1%)	9 (9.2%)		
Oral Care Supplies	Unused	160 (89.4%)	80 (90.9%)	89 (90.8%)	15.776	0.000*
	Use	27 (15.1%)	25 (28.4%)	7 (7.1%)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ral cleanser	152 (84.9%)	63 (71.6%)	91 (92.9%)	131.703	0.000*
	Unused	35 (19.6%)	26 (29.5%)	87 (88.8%)		
Breakfasts	Yes	144 (80.4%)	62 (70.5%)	11 (11.2%)	8.278	0.407
	No	74 (41.3%)	32 (36.3%)	37 (37.8%)		
	0 times a week	51 (28.5%)	19 (21.6%)	32 (32.7%)		
	1 to 2 times a week	26 (14.5%)	16 (18.2%)	14 (14.3%)		
	3 to 4 times a week	10 (5.6%)	11 (12.5%)	9 (9.1%)		
Breakfasts	5 to 6 times a week	18 (10.1%)	10 (11.4%)	6 (6.1%)		
	7 times a week					

* $p < .05$

4. 대상자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요인

연구 대상자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요인에 대한 차이는 <Table 7>과 같다.

1) 흡연

남학생의 경우 흡연자는 62명(36.3%), 비흡연자는 109명(63.7%)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흡연자는 21명(10.8%), 비흡연자는 173명(89.2%)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2) 음주

남학생의 경우 음주자는 126명(73.7%), 비음주자는 45명(26.3%)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음주자는 131명(67.5%), 비음주자는 63명(32.5%)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3) 일일 칫솔질 횟수

남학생에서 하루 2번 이하는 23명(13.5%)이었고, 하루 3번 이상은 148명(86.5%)이었다. 여학생에서 하루 2번 이하는 6명(3.1%), 하루 3번 이상은 188명(96.9%)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4) 평균 칫솔질 시간

남학생에서 2분 미만은 49명(28.7%), 2분 이상 4분 미만이 74명(43.3%), 4분 이상은 48명(28.0%)이었다. 여학생에서 2분 미만은 46명(23.7%), 2분 이상 4분 미만이 103명(53.1%), 4분 이상은 45명(23.3%)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5) 칫솔질 방법

남학생에서 무응답은 2명(1.2%), 횡마법은 8명(4.7%), 종마법은 10명(8.5%), 치은마사지를 포함한 횡마법은 7명(4.1%), 묘원법은 52명(30.4%), 회전법은 92명(53.8%)이었고, 여학생에서 무응답은 1명(0.5%), 횡마법은 5명(2.6%), 종마법은 6

명(3.1%), 묘원법은 61명(31.4%), 회전법은 109명(56.2%)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6) 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

① 치실

남학생에서 치실을 사용한다는 35명(20.5%)이었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136명(79.5%)이었다. 여학생에서 치실을 사용한다는 69명(35.6%)이었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125명(64.4%)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② 혀클리너

남학생에서 혀클리너를 사용한다는 27명(15.8%)이었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144명(84.2%)이었다. 여학생에서 혀클리너를 사용한다는 35명(18.0%), 사용하지 않는다는 159명(82.0%)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③ 치간칫솔

남학생에서 치간칫솔을 사용한다는 13명(7.6%), 사용하지 않는다는 158명(92.4%)이었다. 여학생에서 치간칫솔을 사용한다는 23명(11.9%)이었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171명(88.1%)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④ 구강세정제

남학생에서 구강세정제를 사용한다는 28명(16.4%)이었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143명(83.6%)이었다. 여학생에서 구강세정제를 사용한다는 31명(16.0%)이었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163명(84.0%)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7) 구강보건교육경험

남학생에서 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50명(29.2%), 미경험의 경우는 121명(70.8%)이었고, 여학생에서 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98명(50.5%), 미경험의 경우는 96명(49.5%)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8) 아침식사횟수

남학생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68명(39.8%)이며 주 1~2회는 40명(23.4%), 주 3~4회는 23명(13.5%), 주 5~6회는 16명(9.3%), 주 7회는 24명(14.0%)이었다. 여학생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75명(38.7%)이었고, 주 1~2회는 62명(32.0%), 주 3~4회는 33명(17.0%), 주 5~6회는 14명(7.2%), 주 7회는 10명(5.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Table 7. Oral Health Management Factors According to Sex>

Category	Division	Sex		x^2	p
		Male	Female		
smoking	Yes	62 (36.3%)	21 (10.8%)	33.461	0.000*
	No	109 (63.7%)	173 (89.2%)		
Drinking	Yes	126 (73.7%)	131 (67.5%)	1.655	0.198
	No	45 (26.3%)	63 (32.5%)		
Number of	Less than 2 times a day	23 (13.5%)	6 (3.1%)	13.331	0.000*
Brushing	More than 3 times a day	148 (86.5%)	188 (96.9%)		
Brushing	Less than 2 minutes	49 (28.7%)	46 (23.7%)	3.508	0.173
	Less than 2 minutes and	74 (43.3%)	103 (53.1%)		
	Time less than 4	48 (28.0%)	45 (23.3%)		
How to	No answer	2 (1.2%)	1 (0.5%)	4.063	0.540
	Scrub method	8 (4.7%)	5 (2.6%)		
	Vertical method	10 (8.5%)	6 (3.1%)		
	Scrub method including	7 (4.1%)	12 (6.2%)		
Brush	gingival massage	52 (30.4%)	61 (31.4%)	10.170	0.001*
	Circular method	92 (53.8%)	109 (56.2%)		
	Rolling method	35 (20.5%)	69 (35.6%)		
Oral Care	Dental floss	136 (79.5%)	125 (64.4%)	0.327	0.568
	Tongue Cleaner	27 (15.8%)	35 (18.0%)		
	Unused	144 (84.2%)	159 (82.0%)		
	Interdental	13 (7.6%)	23 (11.9%)		
	toothbrush	158 (92.4%)	171 (88.1%)		
Supplies	Use	28 (16.4%)	31 (16.0%)	1.849	0.174
	Unused	143 (83.6%)	163 (84.0%)		
Oral health	Education	50 (29.2%)	98 (50.5%)	17.066	0.000*
	No	121 (70.8%)	96 (49.5%)		
Experience	0 times a week	68 (39.8%)	75 (38.7%)	11.367	0.023*
	1 to 2 times a week	40 (23.4%)	62 (32.0%)		
	3 to 4 times a week	23 (13.5%)	33 (17.0%)		
	5 to 6 times a week	16 (9.3%)	14 (7.2%)		
	7 times a week	24 (14.0%)	10 (5.1%)		

* $p < .05$

5. 구강보건태도·실천

1)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실천 차이

① 구강보건태도

연구 대상자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에 대한 차이는 <Table 8>과 같다.

‘칫솔질 할 때 혀도 닦을 의향이 있다.’ 항목에서 구강보건계열이 4.62 ± 0.603 , 일반보건계열이 4.51 ± 0.832 , 비보건계열이 4.20 ± 0.827 이었고 구강보건계열과 일반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저녁 식사 후와 자기 전 칫솔질을 할 의향이 있다.’ 항목에서 구강보건계열이 4.42 ± 0.738 , 일반보건계열이 4.37 ± 0.788 , 비보건계열이 4.09 ± 0.849 이었고, 구강보건계열과 일반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치약은 크림상태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에서 구강보건계열이 4.57 ± 0.648 , 일반보건계열이 4.21 ± 0.889 , 비보건계열이 3.93 ± 0.901 이었고 구강보건계열, 일반보건계열, 비보건계열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구강관리용품(치실, 치간칫솔 등)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에서 구강보건계열이 4.18 ± 0.934 , 일반보건계열이 3.94 ± 1.034 , 비보건계열이 3.71 ± 1.009 이었고 구강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1년에 한번 이상 스켈링을 받을 수 있다.’ 항목에서 구강보건계열이 4.44 ± 0.729 , 일반보건계열이 3.97 ± 1.096 , 비보건계열이 3.73 ± 1.011 이었고 구강보건계열, 일반보건계열, 비보건계열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Table 8. Comparison of Oral Health Attitude According to Major>

Oral health attitude	Major category			F	p
	Oral Health	General health	Non-health department		
1. I am willing to brush my tongue when brushing.	4.62±0.603 ^a	4.51±0.832 ^a	4.20±0.827	10.496	0.000*
2. I am willing to brush my teeth after dinner and before going to bed.	4.42±0.738 ^a	4.37±0.788 ^a	4.09±0.849	6.221	0.002*
3. Toothpaste is intended to be used in a creamy state.	4.57±0.648 ^a	4.21±0.889 ^b	3.93±0.901	19.709	0.000*
4. Oral care products (dental floss, interdental toothbrush, etc.) are willing to use.	4.18±0.934 ^a	3.94±1.034 ^{a,b}	3.71±1.009 ^b	7.201	0.001*
5. You can be scaled more than once a year.	4.44±0.729 ^a	3.97±1.096 ^b	3.73±1.011	18.080	0.000*

* $p < .05$

a, b =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② 구강보건실천

연구 대상자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실천에 대한 차이는 <Table 9>와 같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항목에서 구강보건계열이 2.83±0.997, 일반보건계열이 3.04±1.203, 비보건계열이 2.89±1.135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검진 후 치과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있다.’ 항목에서는 구강보건계열이 3.59±1.016, 일반보건계열이 3.54±1.202, 비보건계열이 3.28±1.089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항목에서 구강보건계열이 3.96±0.873, 일반보건계열이 3.93±0.885, 비보건계열이 3.76±0.906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식 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구강보건계열이 2.96±1.015, 일반보건계열이 3.14±1.223, 비보건계열이 2.95±1.053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취침 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항목에서 구강보건계열이 4.13±0.896, 일반보건계열이 3.94±1.069, 비보건계열이 3.79±1.021이었고 구강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치아와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있다.’ 항목에서 구강보건계열이 2.59±0.960, 일반보건계열이 2.64±1.123, 비보건계열이 2.65±1.137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칫솔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항목에서 구강보건 계열이 3.33±0.932, 일반보건계열이 3.02±1.181, 비보건계열이

3.17±1.077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항목에서 구강보건계열이 3.40±0.983, 일반보건계열이 3.10±1.117, 비보건계열이 3.21±0.727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9. Comparison of Oral Health Practice According to Major>

Oral health practice	Major category			F	p
	Oral Health	General health	Non-health department		
1. I have regular oral examinations.	2.83±0.997	3.04±1.203	2.89±1.135	1.080	0.341
2. If a dental treatment is required after a mouth exam, you are being treated.	3.59±1.016	3.54±1.202	3.28±1.089	2.889	0.057
3. I am brushing after meals.	3.96±0.873	3.93±0.885	3.76±0.906	1.926	0.147
4. I'm brushing after a snack.	2.96±1.015	3.14±1.223	2.95±1.053	1.036	0.356
5. I have been brushing before going to bed.	4.13±0.896 ^a	3.94±1.069 ^{a,b}	3.79±1.021 ^b	3.692	0.026*
6. Avoiding teeth and harmful foods.	2.59±0.960	2.64±1.123	2.65±1.137	0.136	0.873
7. We have chosen toothbrushes suitable for tooth and gum condition.	3.33±0.932	3.02±1.181	3.17±1.077	2.524	0.082
8. We are using toothpaste that is suitable for tooth and gum condition.	3.40±0.983	3.10±1.117	3.21±0.727	2.638	0.073

* $p < .05$

a, b =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실천 차이

① 구강보건태도

연구 대상자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에 대한 차이는 <Table 10>과 같다.

‘칫솔질 할 때 혀도 닦을 의향이 있다.’ 항목에서 1학년이 4.40±0.804, 2학년이 4.33±0.867, 3학년이 4.60±0.605이었고 3학년이 2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저녁 식사 후와 자기 전 칫솔질을 할 의향이 있다.’ 항목에서 1학년이 4.31±0.808, 2학년이 4.15±0.851, 3학년이 4.40±0.743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약은 크림상태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에서 1학년이 4.14±0.892,

2학년이 4.09±0.892, 3학년이 4.55±0.675이었고,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구강관리용품(치실, 치간칫솔 등)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에서 1학년이 3.87±1.008, 2학년이 3.77±1.080, 3학년이 4.23±0.883이었고 3학년이 1학년이나 2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1년에 한번 이상 스켈링을 받을 수 있다.’ 항목에서 1학년이 3.92±1.046, 2학년이 3.91±1.046, 3학년이 4.42±0.731이었고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0. Comparison of Oral Health Attitudes by Grade>

Oral health attitude	Grade			F	p
	1	2	3		
1. I am willing to brush my tongue when brushing.	4.40±0.804 ^{ab}	4.33±0.867 ^a	4.60±0.605 ^b	3.270	0.039*
2. I am willing to brush my teeth after dinner and before going to bed.	4.31±0.808	4.15±0.851	4.40±0.743	2.313	0.100
3. Toothpaste is intended to be used in a creamy state.	4.14±0.892 ^a	4.09±0.892 ^a	4.55±0.675	9.395	0.000*
4. Oral care products (dental floss, interdental toothbrush, etc.) are willing to use.	3.87±1.008 ^a	3.77±1.080 ^a	4.23±0.883	6.046	0.003*
5. You can be scaled more than once a year.	3.92±1.046 ^a	3.91±1.046 ^a	4.42±0.731	9.518	0.000*

* $p < .05$

a, b =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② 구강보건실천

연구 대상자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실천에 대한 차이는 <Table 11>과 같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항목에서 1학년이 2.86±1.136, 2학년이 2.95±1.183, 3학년이 2.97±1.000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검진 후 치과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있다.’ 항목에서는 1학년이 3.37±1.141, 2학년이 3.41±1.161, 3학년이 3.68±0.959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항목에서 구강보건계열이 1학년이 3.83±0.877, 2학년이 3.85±0.953, 3학년이 3.99±0.855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식 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항목에서 1학년이 3.04±1.088, 2학년이 3.13±1.173, 3학년이 2.86±1.025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취침 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항목에서 1학년이 3.85±1.041, 2학년이 3.88±1.048, 3학년이 4.20±0.837이었고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치아와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있다.’ 항목에서 1학년이 2.66±1.106, 2학년이 2.58±1.036, 3학년이 2.59±1.044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칫솔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항목에서 1학년이 3.11±1.151, 2학년이 3.00±1.039, 3학년이 3.47±0.864이었고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항목에서 1학년이 3.15±1.102, 2학년이 3.06±1.010, 3학년이 3.55±0.932이었고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1. Comparison of Oral Health Practices by Grade>

Oral health practice	Grade			F	p
	1	2	3		
1. I have regular oral examinations.	2.86±1.136	2.95±1.183	2.97±1.000	0.388	0.679
2. If a dental treatment is required after a mouth exam, you are being treated.	3.37±1.141	3.41±1.161	3.68±0.959	2.735	0.066
3. I am brushing after meals.	3.83±0.877	3.85±0.953	3.99±0.855	1.043	0.353
4. I'm brushing after a snack.	3.04±1.088	3.13±1.173	2.86±1.025	1.509	0.222
5. I have been brushing before going to bed.	3.85±1.041 ^a	3.88±1.048 ^a	4.20±0.837	4.388	0.013*
6. Avoiding teeth and harmful foods.	2.66±1.106	2.58±1.036	2.59±1.044	0.249	0.780
7. We have chosen toothbrushes suitable for tooth and gum condition.	3.11±1.151 ^a	3.00±1.039 ^a	3.47±0.864	5.352	0.005*
8. We are using toothpaste that is suitable for tooth and gum condition.	3.15±1.102 ^a	3.06±1.010 ^a	3.55±0.932	6.521	0.002*

* $p < .05$

a, b =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실천 차이

① 구강보건태도

연구 대상자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에 대한 차이는 <Table 12>와 같다.

‘칫솔질 할 때 혀도 닦을 의향이 있다.’ 항목에서 남학생이 4.27 ± 0.887 , 여학생이 4.59 ± 0.632 이었다. ‘저녁 식사 후와 자기 전 칫솔질을 할 의향이 있다.’ 항목에서 남학생이 4.13 ± 0.867 , 여학생이 4.43 ± 0.718 점이었다. ‘치약은 크림상태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에서 남학생이 3.95 ± 0.926 , 여학생이 4.49 ± 0.707 이었다. ‘구강관리용품(치실, 치간칫솔 등)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에서 남학생이 3.65 ± 1.082 , 여학생이 4.20 ± 0.861 이었다. ‘1년에 한번 이상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항목에서 남학생이 3.88 ± 1.058 , 여학생이 4.21 ± 0.910 이었다.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2. Comparison of Oral Health Attitudes According to Sex>

Oral health attitude	Sex		t	p
	Male	Female		
1. I am willing to brush my tongue when brushing.	4.27 ± 0.887	4.59 ± 0.632	-3.906	0.000***
2. I am willing to brush my teeth after dinner and before going to bed.	4.13 ± 0.867	4.43 ± 0.718	-3.552	0.000***
3. Toothpaste is intended to be used in a creamy state.	3.95 ± 0.926	4.49 ± 0.707	-6.159	0.000***
4. Oral care products (dental floss, interdental toothbrush, etc.) are willing to use.	3.65 ± 1.082	4.20 ± 0.861	-5.344	0.000***
5. You can be scaled more than once a year.	3.88 ± 1.058	4.21 ± 0.910	-3.193	0.002**

** $p < .01$ *** $p < .001$

② 구강보건실천

연구 대상자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실천에 대한 차이는 <Table 13>과 같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항목에서 남학생이 2.77 ± 1.117 , 여학생이 3.04 ± 1.093 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구강검진 후 치과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있다.’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3.28 ± 1.199 , 여학생이 3.62 ± 0.991 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항목에서 남학생이 3.74±0.949, 여학생이 4.01±0.818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식 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항목에서 남학생이 2.99±1.095, 여학생이 3.03±1.096이었다. ‘취침 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항목에서 남학생이 3.80±1.051, 여학생이 4.09±0.937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치아와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있다.’ 항목에서 남학생이 2.67±1.023, 여학생이 2.59±1.113이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칫솔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항목에서 남학생이 3.05±1.067, 여학생이 3.30±1.055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항목에서 남학생이 3.12±1.028, 여학생이 3.34±1.066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3. Comparison of Oral Health According to Sex>

Oral health practice	Sex		t	p
	Male	Female		
1. I have regular oral examinations.	2.77±1.117	3.04±1.093	-2.280	0.023*
2. If a dental treatment is required after a mouth exam, you are being treated.	3.28±1.199	3.62±0.991	-2.955	0.003*
3. I am brushing after meals.	3.74±0.949	4.01±0.818	-2.874	0.004*
4. I'm brushing after a snack.	2.99±1.095	3.03±1.096	-.371	0.711
5. I have been brushing before going to bed.	3.80±1.051	4.09±0.937	-2.788	0.006*
6. Avoiding teeth and harmful foods.	2.67±1.023	2.59±1.113	0.703	0.482
7. We have chosen toothbrushes suitable for tooth and gum condition.	3.05±1.067	3.30±1.055	-2.267	0.024*
8. We are using toothpaste that is suitable for tooth and gum condition.	3.12±1.028	3.34±1.066	-1.983	0.048*

* $p < .05$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실천 평균

①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실천 평균의 차이

연구 대상자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실천 평균에 대한 차이는 <Table 14>와 같다.

‘구강보건태도 평균’에서 구강보건계열이 4.45±.049, 일반보건계열이 4.20±.068, 비보건계열이 3.93±.065이었고, 구강보건계열, 일반보건계열, 비보건계열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구강보건실천 평균’에서 구강보건계열이 3.35±.053, 일반보건계열이 3.29±.074, 비보건계열이 3.21±.065이었다.

<Table 14. Comparison of Oral Health Attitude and Practice Average by Major>

Category	Oral Health	General health	Non-health department	F	p
Oral health attitude	4.45±.049 ^a	4.20±.068 ^b	3.93±.065	18.798	0.000*
Oral health practice	3.35±.053	3.29±.074	3.21±.065	1.248	0.288

* $p < .05$

a, b =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②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실천 평균의 차이

연구 대상자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실천 평균에 대한 차이는 <Table 15>와 같다.

‘구강보건태도 평균’에서 1학년이 4.13±.052, 2학년이 4.05±.084, 3학년이 4.44±.056이었고,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구강보건실천 평균’에서 1학년이 3.23±.055, 2학년이 3.23±.079, 3학년이

3.41±.059이었다.

<Table 15. Oral Health Attitude and Practice by Grade>

Category	1	2	3	F	p
Oral health attitude	4.13±.052 ^a	4.05±.084 ^a	4.44±.056	9.154	0.000*
Oral health practice	3.23±.055	3.23±.079	3.41±.059	2.415	0.091

* $p < .05$

a, b =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연구 대상자 중 구강보건계열의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실천에 대한 차이는 <Table 16>과 같다.

‘구강보건태도 평균’에서 1학년이 4.37±.119, 2학년이 4.31±.184, 4.49±.055이었다.

‘구강보건실천 평균’에서 1학년이 3.07±.137, 3.23±.133, 3학년이 3.44±.061이었고, 3학년이 1학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6. Oral Health Attitude and Average of Oral Health by Grade>

Category	1	2	3	F	p
Oral health attitude	4.37±.119	4.31±.184	4.49±.055	0.990	0.374
Oral health practice	3.07±.137 ^a	3.23±.133 ^{a,b}	3.44±.061 ^b	4.047	0.020*

* $p < .05$

a, b =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③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실천 평균의 차이

연구 대상자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실천 평균에 대한 차이는 <Table 17>과 같다.

‘구강보건태도 평균’에서 남학생이 3.98 ± 0.057 , 여학생이 4.38 ± 0.043 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구강보건실천 평균’에서 남학생이 3.18 ± 0.054 , 여학생이 3.38 ± 0.04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계역이었다.

<Table 17. Comparison of Oral Health Attitude and Practice Average by Sex>

Category	Male	Female	F	p
Oral health attitude	3.98 ± 0.057	4.38 ± 0.043	3.336	0.000*
Oral health practice	3.18 ± 0.054	3.38 ± 0.049	0.027	0.006*

* $p < .05$

6. 구강보건태도·실천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태도와 실천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18>과 같다.

구강보건태도,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강보건태도와 실천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8.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Attitude and Practice>

	Oral health attitude	Oral health practice
Oral health attitude	1	0.433**
Oral health practice	0.433**	1

** $p < .01$

7. 구강건강관리요인이 구강보건태도·실천에 미치는 영향

1) 구강건강관리요인이 구강보건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관리요인이 구강보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9>와 같다.

구강건강관리요인이 구강보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은 2.036으로 2에 근접하여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의확률 .000으로 변수 중 한 가지 이상이 유의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 공차는 0.1이상 VIF가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계열의 B(비표준화계수)는 .457, 보건계열의 B는 .223으로 비보건계열에 비해 구강보건계열과 일반보건계열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의 B는 -.327로 통계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강보건교육여부, 아침식사횟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계열과 성별이 구강보건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는 .385였고 R^2 은 .148이었으며 $Adj.R^2$ 은 .132로 설명력은 13.2%로 나타났다.

<Table 1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al Health Attitude>

Category	B	SE	β	t	p	공선성 통계		
						허용오차	VIF	
			reference					
Major health category	Non health		reference					
	General health	0.223	0.088	0.146	2.541	0.011**	0.050	0.395
Oral health attitude	Oral Health	0.457	0.130	0.312	3.518	0.000***	0.202	0.713
	Grade							
	1		reference					
	2	-0.099	0.086	-0.061	-1.159	0.247	-0.268	0.069
	3	-0.112	0.121	-0.071	-0.930	0.353	-0.349	0.125
Sex	Female		reference					
	Male	-0.327	0.073	-0.233	-4.477	0.000***	-0.470	-0.183
Oral Health	Education	-0.030	0.103	-0.021	-0.287	0.774	-0.233	0.174
	Experience							
	Breakfasts	-0.008	0.015	-0.027	-0.542	0.588	-0.039	0.022

R=0.385 $R^2=0.148$ Adj. $R^2=0.132$ F=8.874 유의확률=0.000 Durbin-Watson=2.036

* $p < .05$ ** $p < .01$ *** $p < .001$

2) 구강건강관리요인이 구강보건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관리요인이 구강보건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0>과 같다.

구강건강관리요인이 구강보건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은 1.727로 2에 근접하여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의확률은 .129로 확인되었다. 공차는 0.1이상 VIF가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 학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의 B는 -.154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강보건교육여부, 아침식사 횟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이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는 .175였고 R^2 은 .031이었으며 Adj. R^2 은 .012로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Table 2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al Health Practice>

Category	B	SE	β	t	p	공선성 통계		
						허용오차	VIF	
			reference					
Major category	Non health							
	General health	0.057	0.094	0.038	0.613	0.540	-0.127	0.242
Oral Health	Oral Health	-0.086	0.139	-0.059	-0.622	0.534	-0.360	0.187
	1		reference					
Oral health attitude	Grade 2	-0.014	0.092	-0.009	-0.153	0.879	-0.194	0.166
	3	0.127	0.129	0.080	0.984	0.326	-0.127	0.380
Sex	Female		reference					
	Male	-0.154	0.078	-0.110	-1.971	0.049*	-0.307	0.000
Oral Health	Education	-0.125	0.111	-0.087	-1.126	0.261	-0.342	0.093
	Experience		0.016	-0.013	-0.249	0.803	-0.037	0.028
	Breakfasts	-0.004						

R=0.175 $R^2=0.031$ Adj. $R^2=0.012$ F=1.616 유의 확률=0.129 Durbin-Watson=1.727

* $p < .05$ ** $p < .01$ *** $p < .001$

8. 구강건강관리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 구강보건교육 경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21>과 같다.

종속변수인 구강보건교육 경험여부는 예라고 대답한 군과 아니오라고 대답한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계열, 학년, 성별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카이제곱은 225.084,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건 계열을 기준으로 구강보건계열이 16.9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일반보건계열은 비보건계열 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학년을 기준으로 3학년이 4.676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2학년은 1학년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1.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Category		B	SE	Wals	OR	95% CI	<i>p</i>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Non-health	reference						
	Major category	General health	-0.733	0.400	3.363	0.480	0.219~1.052	0.067
		Oral Health	2.829	0.434	42.515	16.926	7.232~39.613	0.000***
	Grade	1	reference					
		2	0.484	0.359	1.822	1.623	0.803~3.278	0.177
		3	1.542	0.513	9.054	4.676	1.712~12.770	0.003**
Sex	Female	reference						
	Male	-0.459	0.325	1.996	0.632	0.334~1.195	0.158	
Chi square of model (df), <i>p</i> -value						225.084(5), 0.000		
Hosmer-Lemeshow Test Chi squared(df), <i>p</i> -value						10.196(7), 0.178		

* $p < .05$ ** $p < .01$ *** $p < .001$

2) 일일 칫솔질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대상자의 일일 칫솔질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22>와 같다.

종속변수인 일일 칫솔질 횟수는 하루 2회 이하라고 대답한 군과 하루 3회 이상이라고 대답한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계열, 학년, 성별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카이제곱은 22.423,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서는 비보건 계열을 기준으로 구강보건계열, 일반보건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에는 1학년을 기준으로 2학년, 3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271배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eeth Daily Brushing Frequency>

Category		B	SE	Wals	OR	95% CI	<i>p</i>	
Teeth daily brushing frequency	Non-health	reference						
	Major category	General health	0.316	0.451	0.492	1.372	0.567~3.319	0.483
		Oral Health	1.304	0.784	2.767	3.683	0.793~17.117	0.096
	Grade	1	reference					
		2	0.505	0.491	1.057	1.657	0.632~4.342	0.304
		3	0.535	0.925	0.334	1.708	0.279~10.469	0.563
Sex	Female	reference						
	Male	-1.306	0.486	7.238	0.271	0.105~.701	0.007**	

Chi square of model (df), *p*-value 22.423(5), 0.000

Hosmer-Lemeshow Test Chi squared(df), *p*-value 4.846(6), 0.564

하루 2번 이하/하루 3번 이상

* *p*<.05 ***p*<.01 ****p*<.001

3) 치실 사용에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대상자의 치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23>과 같다.

종속변수인 치실 사용 여부는 예라고 대답한 군과 아니오라고 대답한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계열, 학년, 성별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카이제곱은 26.977,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건 계열을 기준으로 구강보건계열과 일반보건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학년을 기준으로 2학년이 2.0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은 1학년 보다 2.4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 3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600배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Dental Floss Use>

Category		B	SE	Wals	OR	95% CI	p	
Dental floss use	Non-health	reference						
	Major category	General health	0.410	0.321	1.627	1.506	0.803~2.827	0.202
		Oral Health	0.438	0.411	1.136	1.549	0.693~3.465	0.286
	Grade	1	reference	0.304				
		2	0.730	0.406	5.773	2.076	1.114~3.766	0.016*
		3	0.885		4.750	2.424	1.093~5.375	0.029*
	Sex	Female	reference	0.257				
	Male	-0.511		3.945	0.600	0.362~0.993	0.047*	

Chi square of model (df), p-value 26.977(5), 0.000

Hosmer-Lemeshow Test Chi squared(df), p-value 1.934(6), 0.926

* $p < .05$ ** $p < .01$ *** $p < .001$

4) 치과방문 여부에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대상자의 치과방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24>와 같다.

종속변수인 치과방문 여부는 예라고 대답한 군과 아니오라고 대답한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계열, 학년, 성별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카이제

곱은 20.665, 유의확률은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건 계열을 기준으로 구강보건계열, 일반보건계열이 높았고, 1학년을 기준으로 2학년, 3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열과 학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489배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Dental Visits>

Category		B	SE	Wals	OR	95% CI	p	
Dental hospital room	Non-health	reference						
	Major category	General health	0.334	0.275	1.484	1.397	0.816~2.393	0.223
		Oral Health	0.151	0.360	0.176	1.163	0.575~2.353	0.675
	Grade	1	reference	0.274				
		2	0.452	0.383	2.714	1.571	0.918~2.688	0.099
		3	0.465		1.474	1.592	0.751~3.375	0.225
Sex	Female	reference	0.231					
	Male	-0.715		9.573	0.489	0.311~0.769	0.002*	
Chi square of model (df), p-value						20.665(5), 0.001		
Hosmer-Lemeshow Test Chi squared(df), p-value						2.942(7), 0.890		

* $p < .05$ ** $p < .01$ *** $p < .001$

5) 흡연에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대상자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25>와 같다.

종속변수인 흡연 여부는 예라고 대답한 군과 아니오라고 대답한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계열, 학년, 성별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카이제곱은 45.465,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건 계열을 기준으로 구강보건계열은 높고, 일반보건계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학년을 기준으로 2학년이 2.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3학년은 1학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은 여학생을 기준으로 남학생이 4.4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moking Status>

Category		B	SE	Wals	OR	95% CI	<i>p</i>
Smoking	Non-health	reference					
	Major category						
	General health	-0.080	0.327	0.060	0.923	0.486~1.753	0.806
	Oral Health	0.533	0.396	1.806	1.704	0.783~3.706	0.179
	Grade						
	1	reference	0.306				
	2	0.765	0.470	6.258	2.148	1.180~3.912	0.012*
	3	-0.623		1.756	0.536	0.213~1.348	0.185
Sex	Female	reference	0.297				
	Male	1.489		25.139	4.431	2.476~7.929	0.000***
Chi square of model (df), <i>p</i> -value						45.465(5), 0.000	
Hosmer-Lemeshow Test Chi squared(df), <i>p</i> -value						5.900(6), 0.434	

* *p*<.05 ***p*<.01 ****p*<.001

IV. 논의

구강건강 수준은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향상되고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다^[17]. 특히 구강보건교육은 과거 치료목적의 구강건강관리법에서 인식의 변화로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해 모색된 다양한 방법 중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인 건강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18]. 성인 초기의 대학생 시절에 장착된 건강습관은 성인기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며, 이 시기에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생애주기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학생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성인구강보건교육이 20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대학생은 성인 범주에 포함,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만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11].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내에 1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와 구강건강관리요인들이 구강보건태도, 실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 시 대학 선정 기준은 구강보건 계열, 일반보건계열, 비보건계열 학과가 같이 있는 대학으로 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대학 1개교가 해당되었다. 일반보건계열의 학생들은 간호학과와 안경광학과 학생들로 선정하였고, 비보건계열 학생의 경우 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메카트로닉스과, 호텔조리과로 구성하여 다양한 전공교과를 수강한 학생들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최초 연구 설계 시 구강보건 지식·태도·실천도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Cronbach 알파계수 0.6을 기준으로 구강보건 지식의 경우 Cronbach 알파값이 0.530으로 항목을 제외시켰다. 차후 연구에서는 신뢰도 높은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구강보건계열, 3학년, 여학생에서 높았다. 학년이 높을수록($p < .01$), 비보건계열보다 구강보건계열이 16.926배($p < .001$)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19]이 치과계열 학생, 3학년, 여학생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한 견해와 같았다. 김은 구강보건교육을 수강한 학생의 구강보건 태도 및 실천

행동 수준이 미수강한 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하였고, 이^[20]는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이,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구강보건행태가 높게 나왔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구강보건태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이었고, 계열은 구강보건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p < 0.05$).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학생에게서 구강보건태도·실천이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구강관리용품 중 치실사용 여부는 구강보건계열, 3학년, 여학생이 높았고, 구강세정제는 일반보건계열, 1학년, 남학생이 높았다($p < 0.05$). 학년이 높을수록(2학년 $OR=2.076$, 3학년 $OR=2.424$), 여학생이($OR=.600$) 치실 사용 빈도가 많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3], 박^[10], 김^[19]이 치위생학과와 여학생에서 높다고 보고한 것과 같았다. 김은^[19]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은 구강세정제로 남학생의 사용빈도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구강관리용품은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관리와 예방에 효과가 있어 개인에 맞는 적절한 구강관리용품의 사용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낮은 군에서 구강세정제 사용빈도가 높았으며, 구강보건 교육 경험이 높은 군에서 치실 사용 빈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구강관리용품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구강보건교육의 개발 시 구강관리용품의 사용법과 효과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솔질 방법은 횡마법(옆으로 치아만 닦는다.), 종마법(위아래로 치아만 닦는다.), 치은마사지를 포함한 횡마법(옆으로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 묘원법(위아래로 돌려가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 회전법(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치솔을 회전하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의 방법을 조사하였으며 계열, 학년, 성별과 무관하게 회전법을 활용하는 학생이 많았고($p > 0.05$), 이와 박의^[22] 보고와 같았다. 하지만 이^[3]는 치위생학과는 회전법을, 보건계열과 일반계열에서는 묘원법을 활용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보고하여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구강보건 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기에 회전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21].

일일 치솔질 횟수 3번 이상은 구강보건계열, 3학년, 여학생이 높았는데, 이^[3]와 박^[22]의 보고와 같았으나, 박^[10]은 남학생(46.7%)과 여학생(46.9%) 모두에서 하루

2번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정^[23]은 일일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흡연율이 낮았음을 확인하여 칫솔질 횟수와 흡연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흡연은 비보건계열, 2학년(35.2%, OR=2.148/3학년 OR=.536), 남학생(36.3%, OR=4.431)에서 높았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많은 구강보건계열(89.1%), 3학년(88.8%), 여학생(50.5%)에서 적어졌다. 이는 문^[24]과 장^[25]은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구강보건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같았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율이 높았으며, 이에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보건계열, 1학년, 남학생에게서 높았는데, 강^[26]은 중학생에서 주 평균 아침식사를 7일 하는 학생의 구강건강행동이 가장 높았고, 주 평균 아침식사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할수록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27]는 주 평균 아침식사 횟수는 흡연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흡연은 여러 구강질환과의 관계가 규명되어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고, 구강건강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정기적인 의료비 부담도 증가시킨다^[13]. 대학생은 규칙적인 생활과 부모님 배려로 비교적 양호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에 비해 변화된 식습관을 보이며 흡연이나 음주를 접하게 되는 횟수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문^[24]은 청년기 시기의 대학생들의 구강건강 관리행태가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지식과 습관형성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도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적었던 군의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흡연율도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대학생의 불규칙한 생활습관에 맞춘 금연교육과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제주지역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구강보건 태도·실천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은 전공수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을 위해 교양과목 혹은 특강 등의 다양한 형태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구강보건계열의 구강보건실천도가 학년이 높을수록 실천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저학년의 실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구강보건사업의 교육범위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흡연율이 높고, 구강보건교육 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과 구강보건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2004년 박^[28]과, 2017년 강 외 2인^[29]은 군대는 특성상 다양한 소득계층과 지역 등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차이를 해소하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구강건강습관을 익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체생활과 질서의식 고취된 군 조직의 특성상 교육에 빠른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남학생들의 구강보건 인식도와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도내 1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되어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표준화 되지 않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차후 신뢰도 높은 측정도구를 통해 일부 지역이 아닌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내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와 구강보건태도·실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1개 대학의 구강보건계열, 일반보건계열, 비보건계열의 365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열, 학년,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요인 비교 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높은 군에서 구강보건태도·실천이 높았다. 일일 칫솔질 3번 이상, 치실 사용, 구강보건교육 경험에서 구강보건계열, 3학년, 여학생이 높았으며($p < 0.05$), 구강세정제 사용은 일반보건, 1학년, 남학생이 높았다. 흡연비율은 2학년과 남학생이 높았다($p < 0.05$).

2. 구강보건태도·실천의 평균 비교 시 구강보건계열은 구강보건태도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았고($p < 0.05$), 3학년은 4개 항목에서 가장 높았으며, ‘저녁 식사 후와 자기 전 칫솔질을 할 의향이 있다.’ 항목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5$). 여학생이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보다 높았다($p < 0.01$). 구강보건 실천의 8개 항목 중 구강보건 계열은 ‘취침 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항목에서 가장 높았고($p < 0.05$), 3학년은 ‘취침 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칫솔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에서 가장 높았다($p < 0.05$). 여학생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구강검진 후 치과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있다.’,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칫솔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에서 남학생보다 높았다($p < 0.05$).

2. 구강보건태도와 실천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2 = .433$, $p < 0.01$), 구강보건태도는 계열($p < 0.001$)과 성별이($p < 0.001$), 구강보건실천은 성별이($p < 0.05$)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관리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비보건계열보다 구강보건계열에서(OR=16.926), 1학년보다 3학년이(OR=4.676) 높았고, 일일 칫솔질 횟수는 남학생이(OR=.271) 낮았다. 치실 사용은 학년이(2학년 OR=2.076, 3학년 OR=2.424) 높을수록 높았고, 남학생이(OR=.600) 낮았다. 치과 방문 여부는 남학생이 낮았고, 흡연은 2학년과(OR=2.148) 남학생일수록(OR=4.431) 흡연자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로 대학생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개발 시 일반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위해 교양과목 혹은 특강 등의 다양한 형태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저학년의 실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구강보건사업의 교육범위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군대에서의 구강보건교육 실시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구강건강관리 방법과 효과, 금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주도내 1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 표본에 대한 편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없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추후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통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먼저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포기라는 글자를 잊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좁은 식견을 넓혀주시고 지금도 먼 타지에서 못난 제자 걱정을 하고 계실 김성준 교수님과 갑작스레 떠나버리게 되어 걱정이 많으셨을 감세훈 교수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을 써주신 조찬우 교수님과 우재만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논문이 마무리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박형근 교수님, 김성준 교수님, 감세훈 교수님, 조찬우 교수님, 우재만 교수님, 선배 문경필 선생님과 같이 고생했던 학부 동기 여러분,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이수빈 선생님, 양지은 선생님과 백수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도움 주셨던 소속 대학교 관계자분들과 업무시간을 배려해주시고 시간을 쪼개어 도움을 주신 학과장 정희선 교수님과 박남규 교수님, 이무형 교수님께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자 도움을 주셨던 김성수 교수님과 김진아 교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못했는데도 힘들 때 마다 격려해준 우리 제주관광대학교 치기공과 학생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빠 김성건, 조카 전화 한번에 항상 기뻐해주는 외삼촌 내외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큰이모부,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큰이모와 둘째이모, 넷째이모, 막내이모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신경 써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딸, 조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1] Public Oral Health Textbook Development Committee. Public Oral Health. 4 KMS;2017.pp.6-8,68,104
- [2] Ministry of Education. Career tongue of graduates. National unit:Ministry of Education;2018 [cited 2019. Jun. 5]. Available from: https://www.schoolinfo.go.kr/ei/ss/Pneiss_a02_s0.do
- [3] Su Bin Lee. The effect of oral health related factors o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some college students[dissertation]. Busan: Dong-eui University;2018.
- [4] Kawamura M, Iwamoto Y, FA Wright. A comparison of self-reported dental health attitudes and behavior between selected Japanese and Australian students[abstract]. Journal of Dental Education 1997;61(4):354-360.
- [5] Al-Ansari J, Honkala E, Honkala 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among male health sciences college students in Kuwait. BMC Oral Health[abstract].2003;3(2):1-6.
- [6] Halboub E, Al-Maweri S, A Al-Jamaei A, A Al-Wesabi M, Shamala A, Al-Kamel A, Alsharani A, Eissa N. Self-Reported Oral Health Attitudes and Behavior of Dental and Medical students, Yemen[abstract].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2016;8(10):143-150.
- [7] Jung-Eun Moon, Eun-Ju Lee. Relation to use of oral hygiene devices in the adul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6;16(3):427-434.
- [8] KCDC.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Oral Health. National unit:KCDC 2015-2017[cited 2016. Dec. 21, 2018. Jan. 4, 2019. Jan. 11].Available from: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
- [9] MOHW. 2012 Korean National Oral Health Suvey. National unit:[cited 2013. Jun. 24].
A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7111

[10] Hong-Ryurn Park, Sun-Jung Moon. Survey on the Knowledge Level of Oral Health and Prevention Behaviors of some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09;9(5):485-490.

[11] Sun-mi Lee, Jung-Eun Ha, Min-Ji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in Schoo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2):696-702.

[12] Cham-Bit Park, Seon-Young Park, You-Eun Jung, Jung-Hwa Lee, Hye-Jin Kim, Min-Kyung Lee, et al. Investigation into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case of health-related majors and non-health related maj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2015;3(1):41-49.

[13] Hyun-Ok Lee, Ah-Jin Kim. Analysis of Smoking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Practice in Health and Non-Health Related Majors. J Dent Hyg Sci 2014;14(2):183-190.

[14] Mee-hi Lee. An empirical study regarding determinants affect teeth's health of adults in Jeju areas.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2007;9(1):89-100.

[15] Youn-Hwa Kim,. Oral health education on recognition and their prevalence of dental caries comparative analysis of some primary school pupils' in Buckjeju-gun.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02;2(1):1-19

[16] Jin-a Kim.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Or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Island. Journal of the Jeju Tourist College 2000;6:405-420.

[17] Hea Seung OH. A Comparative Study on for the 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and Tooth Brushing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J Den Hyg Sci 2009;9(1):121-127.

- [18] Hyun-Seo Yoon, You-Young Nam, Hyun-A Ryu, Hye-Jin Kim, Min-Kyung Lee, Jung-Hwa Lee. A Survey o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Some Distric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2013;1(1):107-115.
- [19] Su-Jin Kim. A study of Oral Health recognition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Jeonbuk[dissertation]. Jeollabuk-do:Wonkwang University;2012.
- [20] Bo-Ram Lee. The Effect of Oral Health Belief on Oral Health Behaviors in Dental Hygiene Student. Wonkwang University;2015.
- [21] Sun-Hee Lee, Il-Soon Park. A Study on the Use of Oral Health Care Devices and the Oral Hygiene in Some Colleges.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 2011;12(6):2629-2635.
- [22] Seung-He Parki. Comparison o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Jeollabuk-do Korea[dissertation]. Jeollabuk-do:Wonkwang University;2010.
- [23] Tea-Yun Jung. Relationship between oral and general health behaviors among adolescents residing in Taean province. KyungHee Universit;2009.
- [24] Seon-Jeong Moon, Han-na Kim, In-Young Ku. Research on the Smoking Conditions of College Students and the Behavior and Awareness of Oral Hygien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2012;12(11):258-266.
- [25] Kyeung-Ae Jang, Mi-Gyung Seong, Hyun-Kyung Kang, Jung-Ok Choi, Yoon-Sin Kim. Availability of Oral Hygiene Devices for the Patients with Smoking in some Dental Clinics. J Den Hyg Sci 2008;8(1):7-12.
- [26] Hyun-Soo Kang. Relationships between dietary behaviors and oral health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 area[dissertation]. Seoul:MyongjiUniversi;2012.
- [27] Mi-Jeoung Lee. A Study on the Survey of the Breakfast Habits of Cheju Halla College Students in Jeju. Journal of the Korean Nursing Association 2006;29:237-247
- [28] Kum Ok Park. A study on the needs for oral health education of US

Force in Korea and Katusa[dissertation]. Seoul:Yonsei University;2004

[29] Min-Kyung Kang, Hye-Yeon Seo, Yu-Ri Choi. The Convergence effect of oral behavior on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soldi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7;8(9):151-15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oral healthcare awareness and other related factors on attitude towards oral health management and its practice by college students in Jeju province.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using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nd questionnaires from 365 subjects were included.

1. Comparison among fields of study: Oral healthcare majors scored higher in 'toothbrushing three or more times a day,' 'use of floss,' and 'previous oral healthcare education.' ($p < 0.05$) Non-oral healthcare majors scored higher in 'use of mouthwash.' ($p < 0.05$)
2. Comparison by years of study: 2nd year students scored the highest in 'smoking,' 'alcohol consumption,' 'toothbrushing for less than 2 minutes,' and 'toothbrushing for more than 4 minutes.' ($p < 0.05$) 3rd years scored the highest in 'toothbrushing three or more times a day,' 'use of floss,' 'use of tongue scraper' and 'previous oral healthcare education.' ($p < 0.05$) 1st year students scored the highest in 'use of mouthwash.' ($p < 0.05$)
3. Comparison by sex: Male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moking rate ($p < 0.05$) while female students scored higher in 'toothbrushing three or more times a day,' 'use of floss,' 'previous oral hygiene education,' and 'breakfast consumption.' ($p < 0.05$)
4. Attitude towards oral healthcare and its practice: Oral healthcare majors scored higher in all five items on attitude towards oral healthcare. ($p < 0.05$) 3rd year students scored higher in four item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except 'toothbrushing after dinner and before going to bed.' ($p < 0.05$) Female students scored higher than male students in all five items. ($p < 0.01$) Among eight items on the practice of oral healthcare, oral healthcare majors scored the highest in 'toothbrushing before going to bed.' 3rd year students scored the highest in 'toothbrushing before going to bed,' 'selection of appropriate toothbrush by oral health status,' 'selection of appropriate toothpaste by oral health status.' ($p < 0.05$) Female students scored higher than male students in 'regular dental visits,' 'toothbrushing after meals,' 'toothbrushing before going to bed,' 'selection of appropriate toothbrush by oral health status,' 'selection of

appropriate toothpaste by oral health status.’ ($p < 0.05$)

5. Oral healthcare majors, 3rd year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scored higher in both attitude towards oral healthcare and oral healthcare practice. Among oral healthcare majors, 3rd year students scored higher in oral healthcare practice compared to 1st years. ($p < 0.05$)

6.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 towards oral healthcare and oral healthcare practice was noted.

7. Statistically, field of study ($p < 0.001$) and sex ($p < 0.001$) affected attitude towards oral healthcare, while only sex ($p < 0.05$)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practice of oral healthcare.

8.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oral healthcare factors: Oral healthcare majors (OR=16.926) and 3rd year students (OR=4.676) scored higher in ‘previous oral healthcare education’ compared to non-oral healthcare majors and 1st years, respectively. In daily number of toothbrushing, male students (OR=.271) scored lower than female students. Use of dental floss increased with years of study (2nd year OR=2.076, 3rd year OR=2.424), while male students scored lower (OR=.600) than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also scored lower (OR=0.489) in ‘regular dental visits.’ Smoking rate was higher in 2nd years (OR=2.148) and male students (OR=4.431).

Since the survey was done on students of a single institute, there may be some bias in the results due to the regionally limited sampling. Lack of standardized measuring tools also limits the extent of generalization. Thus there is a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research with standardized measures in the future.

부 록 (설문지)

연구제목 : 일부 대학교의 구강위생보조용품 인식 및 사용실태 차이

본 동의서는 연구에 참여하신 귀하께 본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참여여부 결정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에 대한 협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의사를 표명하시어 언제라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본 실험은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련요인이 구강보건 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구강위생보조용품 인식과 사용실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검사할 항목들은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귀하의 개인적 신상의 대해서는 철저한 익명성을 약속드립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 실험은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보건학 전공

연구자 : 김 가 희

지도교수 : 박 형 근

연락처 : 010 - 4459 - 8779

E-mail : chowol79@naver.com

위의 안내문을 읽으신 후, 본 설문 응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제주지역 일부 대학생의 전공별 구강보건 관련 태도 및 행태에
관한 비교 분석

제주관광대학교 학과 :

학년 :

I. 일반적 특성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학생의 연령은? 만 ()세
3. 가족의 월 소득정도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 - 200만원 미만
③ 200 - 300만원 미만 ④ 300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미만
4.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II. 구강건강관리

1. 최근 스스로 느끼기에 입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나요?
① 안난다 ② 가끔 난다 ③ 심하다
2. 최근 주변사람으로부터 입냄새가 난다고 들으신 경험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담배를 피우신다면 하루에 몇 개피를 태우십니까?

하루에 개피

5. 귀하는 술을 마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일주일 회

7. 귀하는 한번 술을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① 소주 반병 ② 소주 1병~2병 미만
③ 소주 2병 이상 ④ 맥주 반병
⑤ 맥주 1~2병 미만 ⑥ 맥주 2병 이상

8. 하루 간식 횟수는?

① 하루 3회 이상 ② 하루 2회 ③ 하루 1회
④ 안 먹는다

9. 간식으로 주로 많이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빵류 ② 과자류 ③ 우유, 유제품
④ 라면, 튀김류 ⑤ 과일, 과일주스 ⑥ 떡류

10. 평소 일주일(7일)에 몇 번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일

11. 귀하의 일일 칫솔질 횟수는?

① 하루 0번 ② 하루 1번 ③ 하루 2번
④ 하루 3번 이상

12. 평소 본인이 칫솔질 하는 시기는?

(모두 고르시오)

- ① 아침 식사 전 ② 아침 식사 후
- ③ 점심 식사 전 ④ 점심 식사 후
- ⑤ 저녁 식사 전 ⑥ 저녁 식사 후
- ⑦ 간식 섭취 전 ⑧ 간식 섭취 후
- ⑨ 흡연 전 ⑩ 흡연 후

13. 칫솔질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분 미만 ② 1~2분 미만
- ③ 2~3분 미만 ④ 3~4분 미만
- ⑤ 4분 이상

14. 칫솔질 할 때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 ① 옆으로 치아만 닦는다.
- ② 위아래로 치아만 닦는다.
- ③ 옆으로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
- ④ 위아래로 돌려가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
- ⑤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칫솔을 회전하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

15. 칫솔질 할 때 혀도 같이 닦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6. 개인이 사용하던 칫솔을 교체하는 주기는?

-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 ④ 4개월 이상

17. 칫솔질을 할 때 치주질환 때문에 잇몸에서 피가 난 적이 있습니까?

- ① 매번 난다 ② 가끔 난다 ③ 안난다.

18. 평소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본인의 관심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Ⅲ. 구강관리용품

1. 현재 치약과 칫솔을 제외하고 사용하고 있는 구강관리용품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

- ① 치실 ② 혀클리너 ③ 치간 칫솔
④ 구강세정제 ⑤ 전동칫솔 ⑥ 워터픽
⑦ 치실고리 ⑧ 없다.

2.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 ①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 강의(프로그램)를 통해 지식 습득 후 사용
② 치과·보건소에서의 구강보건교육 이후 지식 습득 후 사용
③ 가족·친구·지인의 추천으로 사용
④ TV방송(구강보건관련 프로그램, TV광고)을
통해 지식 습득 후 사용
⑤ 인터넷을 통해 지식 습득 후 사용

3.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구강관리용품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사용하기 귀찮아서
③ 구강관리용품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④ 칫솔질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서
⑤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모자라서

6. 현재 충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7.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선천적인 면 ② 칫솔질
③ 음식 ④ 정기적인 구강검진

V. 구강보건교육 경험

1.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수업과목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강위생관리방법, 칫솔질 방법, 스켈링 필요성, 금연 등)

- ① 예 ② 아니오

2.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정보는 주로 어디서 접하셨습니까?

- ① 학교 수업을 통하여
② TV나 라디오 대중매체를 통하여
③ 의료기관(치과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④ 신문, 잡지등의 인쇄매체를 통하여
⑤ 가족 또는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⑥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통하여
⑦ 인터넷을 통하여

구강보건지식

문항	예	아니오
1. 칫솔질 할 때 혀도 닦아야 한다.	①	②
2. 저녁 식사 후와 자기 전 칫솔질을 해야 한다.	①	②
3. 치약은 크림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①	②
4. 구강관리용품(치실, 치간칫솔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①	②
5. 1년에 한번 이상 스케링을 받아야 한다.	①	②

구강보건태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칫솔질 할 때 혀도 닦을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저녁 식사 후와 자기 전 칫솔질을 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치약은 크림상태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구강관리용품(치실, 치간칫솔 등)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1년에 한번 이상 스케링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구강보건실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구강검진 후 치과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간식 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취침 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치아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칫솔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치아와 잇몸상태에 적합한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을 끝까지 완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